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22	03. 01	03. 08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최상우 형제
성 경 봉 득	최상우 형제	김정규 형제	최상우 형제

## 교회소식

2월의 축복 인사 :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순종합시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효섭 Steinbauer 성도 모친 장례 : 19일(목) 오후 2시30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 교우동정

생일	

##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2월)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www.brehanmin.de](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영 Chor	-----	반주자
*기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Gemeindelied	305장	다같이
기도 Gebet	-----	정환영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암 5:4-6(구p1278) (Amos 5:4~6)	정환영 형제
특별찬송 Sonderlied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현금함에 넣어 주세요.

### 기도제목

- 예배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 일어나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 참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모스서는 장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점진적으로 메시지를 심화시킵니다. 1장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2장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죄 가운데 머물면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3장은 “오직 너만 알았다”는 말씀을 통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드러내지만, 이스라엘은 은혜에 익숙해져 하나님을 낯설게 여깁니다. 이에 4장은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회복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모스 5장은 핵심 장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성품을 반복하여 드러내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 I.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직 멀망하지 않고 전성기를 누리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애가를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외형적 번영과 달리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현실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멀망이 아니라 생명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예배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지 않았기에 그 예배는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 II.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안정, 성공, 종교적 형식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대체물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외형적 신앙과 열심은 있어도 정의와 믿음과 사랑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 III.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삶 속의 불의를 함께 고발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 소모임을 위한 질문

-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 오늘 나의 삶에서 벤엘과 길갈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